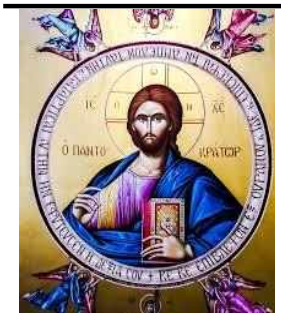
왕이신 그리스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다니엘 7,13-14

[화답송] ..... 시편 93(92), 1ㄱㄴ.1ㄷ-2.5 (◎ 1ㄱ 참조)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제 2 독서] ..... 묵시 1,5ㄱㄷ-8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8,33ㄴ-37

[성가안내]

- 입당성가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 봉헌성가 [340] 봉헌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73] 만왕의 왕 그리스도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제임스 M 한트	울릿다 김 경련
김 영우 요셉, 강 견대 마리아 부부	김 지영 유스티나
정 두선 마리아	정 미자 릿다
로버트 빌로인 신부	김 베네딕도
황 창현, 최 정인 안나, 황 경희 루치아	황 경숙 수산나
김화자 소화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은총의 모후 꾸리아
배지철 안토니, 김영복 아네스, 이경자 벨라뎃다	〃
이재호 클레멘스, 전마사자 카타리나	〃
이재분 베로니카	익명

생미사	봉헌
황 대우 다미아노	정 연수 소피아
김 현용 니콜라오	정 영수 소피아
정 대식 리챠드 가족	조 남록 미카엘
김 영빈 가정 (감사)	김 영빈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1월21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지훈 아네스	박지현 헬레나	이상하 카타리나
11월28일	조소연 마르티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권민호 바오로	정은철 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신혜정 소화 데레사	이아림 수산나

● **11월 21일 '공동체 설립 추진 위원회'**
- **주일 미사 후 2층 사무실 옆 모임방**

● **풍물패 '신명' 단원들 끼리 복습, 연습**
- **오늘, 11월 21일 오후 2시 ~ 4시 교육관 3A**

● **사목 협의회 월례회의**
- **11월 28일 주일 미사후 교육관 2C**

● **Thanks Giving Day**
- **공동체 혼자 지내는 청년들 한 자리에 모임.**
- **11월 25일(목) 오후 6시 프란치스 룸**
- **선착순 30명**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모임 장소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2C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찬양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 위령성월 기도 -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1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요한 18,33ㄴ-37)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위하여 요한이 전해 주는 오늘 복음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빌라도가 주관하는 재판 과정을 조심스럽게 진술하면서 거기 서 계신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압도하는 권위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들여 높여짐'입니다. (요한 3,14 8,28. 12,32 참조)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가 빌라도를 압도하는 이유였습니다.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질문을 하시며 위풍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누가 재판을 당하고 있는지 헷갈릴 만큼 빌라도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 1 독서 다니엘 예선서는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장면을 예언자는 환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느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통치권'을 받아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 2독서 요한 묵시록은 '인사'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칭송했습니다. '성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이들의 맏이',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라는 이름으로 찬미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결합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왕'의 위용을 표현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시키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시며 '영원한 통치자'의 권위와 품위는 '십자가 위에서'이미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왕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기도의 효험

"기도하다 졸았습니다."
고해소에서 가끔 듣는 말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지라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하다 조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서 내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편안히 자는 것처럼 하느님이 편하게 느껴지시면 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기도시간에 조는 분들이야말로 하느님을 진정 편안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깊은 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와서 고민이란 분들에게 묵주의 기도를 권합니다. 단조로운 기도문을 하다보년 저절로 잠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도 중에 졸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몸이 가는 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편안한 시간을 가져야 지친 마음과 몸이 재충전되는데, 기도야말로 부작용 없는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 어머니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한희원이란 화가도 술주정뱅이였는데 술이 깨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을 끊고 그림에 전념해서 '대 화가'가 됐습니다. 어떤 집은 부부가 이혼 직전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인류가 만든 만병통치 약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이 됩니다. 뇌 기능에서도 입증이 된 말입니다. 기도는 인간 뇌의 여적인 영역을 발달시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파충류 포유류의 뇌만 발달해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종교 탄압 국가들이 입증합니다.

신학생들도 기도 시간에 조나요? 좁니다. 신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성체 조배시간. 미사 전 고요하게 다들 묵상하거나 졸고 있는데, 중간쯤 앉아 있던 신학생이 느닷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신학생들이 다들 놀라서 쳐다 봤는데 주변을 둘러보던 그 신학생이 슬그머니 다시 앉는 것입니다.
미사가 끝난 후 아까 왜 일어났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생 왈 "자!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니 앉은 채로 꿈을 꾼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앞자리의 신학생이 쓰러졌습니다. 놀란 신학생들이 업고 뛰어 나갔는데 미사가 끝난 후 의무실에 가보니 세명이 뒤엉켜서 자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쓰러진 녀석을 눈치 빠른 둘이 업어서 의무실로 데려 간 다음 다같이 잠을 잔 것입니다. 군대와 신학교는 잠이 모자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